

# 에너지資源에 對處할 오늘의 課題

## 科總定總 記念講演會盛大히 끝나

### 大陸棚의 國際法上 問題點도 一貫性 있는 綜合開發策 樹立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第9回 定期總會記念學術講演會를 열고 “綜合에너지開發에 關한 研究方案”(尹容九 博士, 韓國原子力研究所長)과 大陸棚에 關한 國際法上의 問題點”(李漢基 博士, 서울大學校 法科大學教授)의 演題講演으로 參席者들의 많은 關心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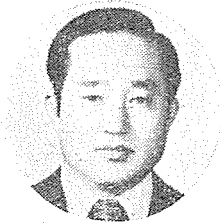
全世界的인 問題로 擡頭되어 심각한 波動을 이르고 있는 에너지 資源의 危機를 어떻게 解決해 나갈 것인가 또는 大陸棚의 國際法上의 問題點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對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많은 質問攻勢와 아울러 熱면 討論을 展開하기도 했다.

이날 講演會에 첫번째로 登단한 尹容九博士는 『에너지 高時代에 處한 우리나라에서는 技術開發을 爲한 強力한 施策을 樹立해서 推進해 가야할 時點에 達했다고』 強調하고 특히 에너지 賦存資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長期的인 에너지 技術開發을 위한 綜合 에너지 技術開發을 일관성있게 施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世界的인 關心事로 등장한 大陸棚의 問題역시 우리나라와 깊은 관련으로해서 끝까지 진지한 가운데 景청하는 모습들이 었는데 李漢基 博士는 『大陸棚의 定義問題에 關한 世界各國의 異論이 구구하여 混難한을 거둬하고 있는 이 問題에대한 法的 解析은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고 前提하고 이같은 懸案문제는 앞으로 개최될 UN 海洋法會議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믿으나 그 귀추가 注目된다고 말했다.

또한 李漢基博士는 우리나라와 이웃 인접국들과의 대륙붕에 緣킨 問題등에 關한 研究발표로서 많은 주목을 끌었는데 이날 講演된 두가지 講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 집 부>

# 綜合에너지에 關한 研究方案



韓國原子力研究所長 理學博士 尹 容 九

## 1. 머 리 말

우리나라는 고도의 經濟成長 및 國民生活向上의 結果로 年平均 10%를 넘는 높은 에너지需要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國內賦存에너지資源의 不足으로 이 증가의 대부분을 輸入原油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에너지輸入依存度는 1971년에 이미 50%를 넘어섰고 1981년에는 70% 이상이 될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한편 작년 10월의 中東戰으로 인하여 石油問題는 현실적으로 世界經濟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심각하게 체험하고 있다. 또한 原油價格도 계속 상승하여 中東產原油(아라비아輕質油基準)의 公示價格이 1972년 2월에 배럴당 2.46달러이던 것이 1973년 10월에는 3.65달러로, 다시 금년 1월에는 11.65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原油導入을 위한 外貨支出額은 1972년에 2.2억달러이던 것이 1973년에는 3.1억달러, 금년도에는 무려 10억달러로 예상되고 있어 막대한 外資負擔의 壓迫要因이 되고 있다. (이 金額은 금년도 輸出目標額 45억달러의 22%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에너지高價時代에 처한 우리나라로서는 綜合에너지開發을 위하여 어디로 중점을 둘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美國에서는 이미 1971년에 Nixon 大統領이 美國 大統領으로서의 처음으로 에너지教書を 議會에 제출하여 깨끗한 에너지(clean energy)의 供給增大策을 제시했다. 이 教書에서는 첫째 깨끗한 에너지源確保를 위한 研究開發投資의 增大, 둘째 國內에너지資源의 活用增大, 셋째 原子力開發努力의 촉진, 넷째 에너지企劃을 專擔할 聯邦機構의 新設 등을 제안했다. 작년초에는 上記提案들을 구현시킬 豫算, 行政 및 法制措置를 촉구하는 에너지教書を 재차 議會에 제출했다. 그 결과 美國의 에너지政策 전반을 다룬 聯邦에너지廳(Federal Energy Administration)이 新設되었고, 에너지開發에 관한 研究를 專擔할 에너지研究開發廳(EDDA,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dministration)을 설치하기 위한 法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에너지政策을 돌이켜 보면 사정이 긴박해졌을 때 短期間에 需要分析, 資金支援, 價格政策, 稅制 등 經濟的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졌으며, 一貫性있는 技術開發對策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주로 技術的 측면에서 綜合的 에너지開發 즉 國內에너지資源의 最大限開發確保 및 에너지利用效率의 向上과 새로운 에너지源의 開發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國家 綜合에너지技術의 開發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 2. 綜合에너지開發에 관한 研究의 基本方向

우리나라에서의 綜合에너지開發에 관한 研究의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은 4가지에 들 수 있다.

첫째, 에너지利用效率의 向上으로서, 産業用·發電用·運輸用 등 에너지需要가 큰 分野에서의 消費節減을 期한다.

둘째, 國內賦存에너지資源의 開發活用으로서 石炭·水力 등을 최대한으로 개발함으로서 에너지輸入依存度의 上昇을 억제한다.

셋째, 化石燃料의 代替에너지로서 原子力發電을 擴充한다. 1986년까지 發電容量累計 6,600MW의 原子力發電所를 건설하며 전체발전용량의

약 40%를 차지하도록 한다.

넷째, 新에너지源으로서 太陽熱, 潮力, 風力, 地熱 등을 開發하고, 新에너지變換技術로서 水素燃料, MHD發電 등의 基礎調査를 실시한다. 新에너지源은 技術的 可能性, 實用性, 및 波及效果 등을 검토하여 技術經濟的 효과가 큰 것부터 示範的 開發 및 利用에 착수한다.

이 基本方向을 短期·中長期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여기에서 短期的 課題라 함은 2~3년 이내에 해결해야 할 것을 말하며, 中·長期라 함은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開發해야 할 課題를 망라한다. 그러나 長期的 課題일지라도 지금부터 調査研究에 착수해야 할 것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表〉 綜合에너지開發에 관한 研究基本方向

	기 본 방 향	호 과	비 고
短 期	① 에너지利用效率向上 ② 國內에너지資源開發確保	原油導入量減縮	産業用, 發電用, 運輸用 등 石炭, 水力 등
中長期	③ 原子力發電의 擴充 ④ 新에너지源 및 新에너지變換技術의 開發, 基礎調査		

## 3. 需要分野別 에너지技術開發課題

發課題를 産業一般, 發電 및 電力消費, 運輸, 住居暖房의 4개 에너지需要分野로 나누어 細分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제시한 基本方向에 따라 에너지技術開

區分	短 期 的 課 題	長 期 的 課 題
가, 産 業	(1) 熱管理技術의 土着化 (가) 熱管理土養成 熱管理診斷 (나) 標準熱量原單位設定 (2) 熱使用設備의 設計製作 技術開發 (보일러, 熱交換機, 乾燥施設 加熱爐 등)	

“特輯” 오늘의 課題

般	(3) 材料開發 (보일러 淸岳劑, 高溫斷熱材 등)	
나, 發電 및 電力消費	(1) 單位發電量當 標準燃料 消費量設定 (2) 石炭混燒率向上 (3) 低電力消費型 機器開發 (에어콘, 冷凍機) 등	(1) 電源開發計劃의 全面的 再檢討 (原子力發電, 水力發電, 採炭地發電) (2) 送配電損失引下 (10.8%→) (3) 廢熱 및 冷却水利用한 地域暖房 (4) 高速增殖爐等新型原子力發電, 核融合發電, M. H. D發電, 太陽發電, 燃料電池 등의 基礎調査
다 運 輸	(1) 漁船用燒玉엔진→디젤엔진代替 (2) 카브레터, 인젝션펌프, 過給器開發 (3) 船型 및 프로펠러效率增進	(1) 最適輸送手段의 시스템研究 (距離帶別, 旅客, 貨物別) (2) 都市 大量交通手段의 調査研究 (3) батери 카의 開發
라, 住居暖房	(1) 煉炭, 溫突의 改良研究 (2) 住宅, 建物の 熱絕緣 基準의 強化 (3) 保溫, 斷熱材開發 (4) 農漁村標準住宅 및 焚火口改良	(1) 메탄가스 (農村燃料) 開發 (2) 住生活方式의 根本的 改善에 關한 調査研究

이중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課題는 燃料多量消費業體에서의 熱管理技術의 土着化에 의한 燃料節減, 우리들의 日常生活과 直結된 煉炭·溫突에 改良研究, 熱損失을 줄이기 위한 建物·住宅의 熱絕緣基準의 強化, 原子力發電과 水力發電의 擴充을 고려한 電源開發計劃의 전면적 再檢討 등을 들수 있다. 이들은 주로 에너지 利用 效率의 向上 및 에너지保存에 關聯되며 短期的으로 해결해야 할 課題들이 많다.

4. 에너지源別 技術開發課題

에너지源別로는 石炭, 油類, 水力, 原子力, 林產物, 新에너지源의 6개 분야로 分類되며 그 細部 技術開發課題들은 다음과 같다.

品分	短期的 課題	長期的 課題
가	(1) 低質炭活用技術의 研究 (4,000kcal이하, 現在 5,100kcal/kg)	(1) 泥炭의 探查 및 活用技術

<p>石 炭</p>	<p>(2) 坑木代用材開發(強化플라스틱) (3) 深部採炭技術의 開發 (4) 新規炭田探查開發 (淺海底含炭層 포함) (5) 有煙炭輸入의 經濟性調查</p>	<p>(2) 無煉炭의 成型 코크스化, 가스化, (3) 石炭의 파이프輸送技術</p>
<p>나, 油 類</p>	<p>(1) 副燃料混合使用技術 (內燃機關燃料에 알콜등混合) (2) 벙커C油 助燃劑 (3) 廢油의 再處理活用 (4) 海底石油探查資料의 解析技術</p>	<p>(1) LNG의 輸入妥當性調查  (2) oil shale 活用技術 (3) 脫黃技術</p>
<p>다, 水 力</p>	<p>(1) 小溪谷 發電, (2) 低落差, 大容量發電을 위한 包藏水力 調查</p>	
<p>라, 原 子 力</p>	<p>(1) 國內우라늄資源의 探查 (2) 核燃料의 成型加工技術 (3) 核燃料再處理 및 Recycle技術 (4) 原子力發電所의 安全性分析 (5) 核燃料 管理技術 (6) 最適核燃料周期調查 (7) 發電用原子爐型의 妥當性調查</p>	<p>(1) 輕水爐, 重水爐, 技術의 消化, 土着化 (2) 高速增殖爐, 新型乾換爐, 高溫가스爐 등의 技術追跡 및 共同參與 (3) 原子力船의 技術追跡 (4) 核融合技術追跡</p>
<p>마, 林 產 物</p>	<p>(1) 速成樹의 育種技術</p>	<p>(1) 農村代替燃料開發 (메탄가스, 泥炭, 太陽熱 등)</p>
<p>바, 新 에 너</p>	<p>(1) 示範 “태양의 집”設置 (2) 潮力發電 基礎調查 (3) 風力揚水機開發</p>	<p>(1) 太陽發電의 先進技術의 追跡 (2) 潮力發電所建設 (3) 包藏風力에 너지調查 및 風力發電 (4) 地熱 (地域暖房 및 發電) (5) 水素燃料</p>

지 源	(6) 其他 (레이저光線에 의한 核融合, 海水로부터의 重水抽出, 등)
--------	--

以上에 記述한 바와 같이 에너지源別 技術開發 課題로는 먼저 國內賦存에 에너지資源의 최대한 開發確保를 위해서 深部採炭技術과 같은 石炭增產 技術의 向上과 kg當 4,000kcal 이하의 低質炭 活用技術의 研究, 小溪谷發電을 포함하는 水力의 최대한의 開發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다음 化石燃料의 代替에너지로서 1986년까지 建設計劃인 累計 6,600MW의 原子力發電所와 관련한 原子力發電 技術의 導入消化가 필요하다.

또한 無公害의 깨끗한 에너지源으로서 기대되는 太陽熱利用 특히 太陽熱을 직접 熱源으로 利用하여 暖冷房 및 溫水供給하는 太陽의 집(solar house)의 示範的開發과 우리나라 西海岸의 天然的인 立地條件을 利用하는 潮力發電 및 農漁村의 灌溉用的 揚水風車 등에도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源別로는 石炭과 水力을 제외하고는 長期的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 5. 綜合에너지開發에 관한 重點 研究課題

以上 에너지技術開發課題를 需要分野別 및 에너지源別로 모두 列舉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優先的, 重點的으로 수행해야 할 課題들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가, 火力發電所, 熱大量消費業體 등에서의 熱使用設備의 效率向上 및 熱管理技術의 土着화 이를 위한 技術指導의 強化.

현재 油類消費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發電 및 産業分野에서 熱管理를 強化함으로써 油類節減을 期한다,

나, 無煙炭의 增產技術(探查, 採炭, 選炭, 및 坑木問題 등)과 低質炭 活用技術의 綜合的인 研究推進.

國內賦存에 에너지資源의 最大限 開發과 그 效率的인 利用을 期함으로서 輸入原油에의 의존을

줄이기 위한 無煙炭 增產 및 低質炭을 사용하는 山元火力發電所의 妥當性 檢討 등 石炭의 開發·活用技術을 研究한다.

다, 小溪谷, 低水位發電 開發에 의한 包藏水力의 最大한 利用과 土木工事, 水車 發電機의 표준화와 運用維持技術의 指導.

小溪谷發電은 이전에도 시도되나 技術未備 등으로 성공하지 못한 經驗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日本, 北歐 등지에서 상당한 技術進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農村地域社會의 開發이라는 면에서도 重點的으로 開發해야 할 課題이다.

라, 原子力發電(輕水型爐 및 其他熱中性子爐)과 核燃料製造·加工·再處理에 관한 先進技術의 도입, 소화와, 新型轉換爐, 高速增殖爐, 核融合發電 등의 技術追跡에 의한 앞으로의 實用化에의 對備.

原子力에너지는 化石燃料 代替에너지로서 이미 實用化된 가장 有力한 에너지源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電源開發計劃에 있어서도 原子力發電이 主宗을 이룰 것이며 1970年代末부터는 60萬~100萬kw級の 原子力發電所가 매년 一基씩 電力系統에 投入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와 같이 多數의 原子力發電所建設에 對處하여 國內技術의 參與度提高와 原子力發電의 段階的인 國產化가 促求되고 있으므로 原子力發電技術 및 核燃料技術의 研究開發은 重點的으로 推進해야 할 과제이다.

마, 太陽熱, 潮力, 風力 등 新에너지源利用을 위한 基礎調査와 그 利用技術의 示範的 開發, 특히 太陽熱을 利用한 暖房 및 溫水供給시스템의 開發과 同시스템의 學校, 아파아트, 病院 등 大型公共建物에의 實用화를 위한 研究.

바, 國內外的인 에너지開發, 利用에 관한 技術 및 經濟的 調查(Techno-Economic Survey)의 계속적인 實施, 현재로서는 經濟性이 희박한 과제라 할지라도 앞으로의 技術發展, 에너지코스트

의 相對的 變動, 및 國內外的 不意의 事態 發生 등을 고려하여 技術經濟的 可能性의 究明을 계속 實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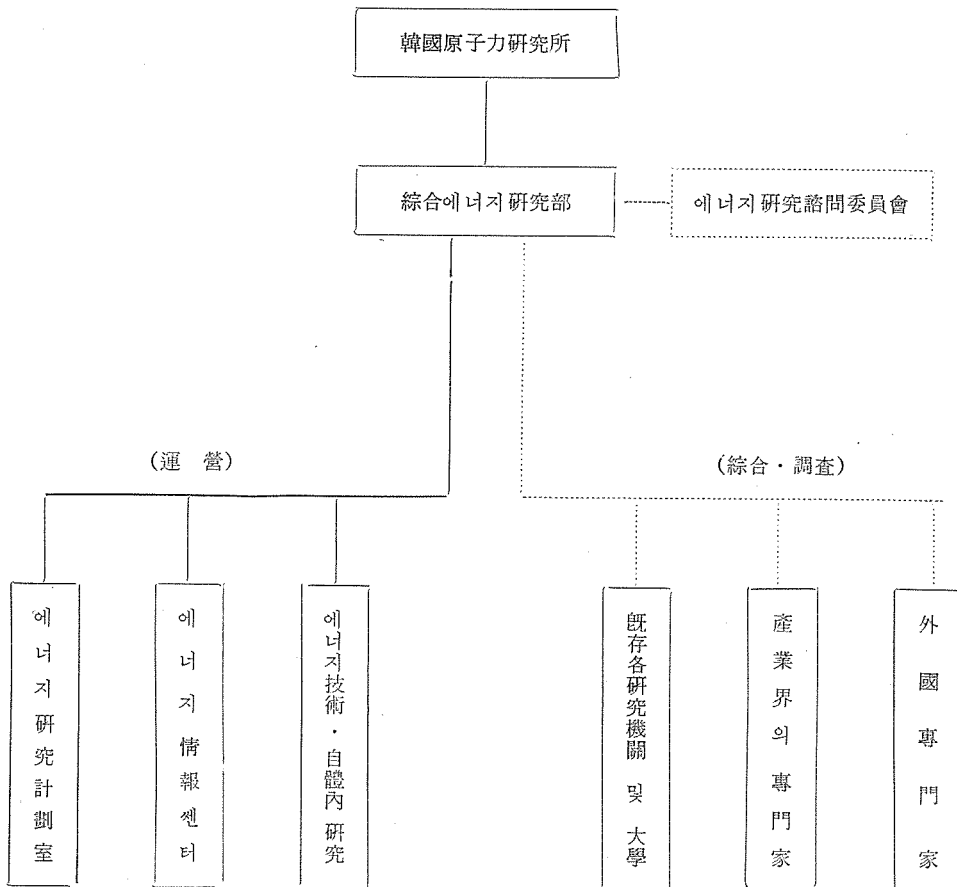
## 6. 推 進 方 案

### 가, 推 進 機 構

綜合에너지開發에 관한 研究는 長期間의 時日과 巨大한 資金을 要하는 國家的 事業이므로 長期的 안목에서 體系的, 組織的으로 추진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에너지기술의 研究는 一貫性있게 集中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同研究를 專擔할 機構의 設置가 要請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實情으로서는 에너지開發에 관한 研究를 위한 새로운 研究機關의 設立은 財政的으로나, 人的資源面으로나 難點이 많으므로 既存 研究機關中 에너지技術研究業務를 擔當하기에 가장 適合하며 또한 그 業務를 遂行할 要件을 갖추고 있는 韓國原子力研究所에 「綜合에너지研究部」가 新設되어, 國內 에너지開發研究의 綜合調整과 國內外 에너지情報센터의 役害을 遂行하는 同時에 自體內에서 몇몇 重要 에너지研究課題를 推進하게 되었다. 綜合에너지 研究部の 機構및 機能은 大略 다음과 같다.



나, 財源調達方案

중합에너지開發事業의 重要性和 또한 長期間에 걸친 一貫性 있는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長期財源確保가 필요하다.

이의 한 방안으로 石油類稅의 一定率을 중합에너지개발자금으로 法定財源化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法定財源의 사례로서는 現行 道路整備促進法에 賦課에 대한 石油類稅額의 100분의75를 道路整備事業의 實施費用으로 歲出豫算에 計上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또한 外國에서의 目的稅에 의한 研究開發資金支援의 예로서는 프랑스에서 石油化學 研究資金을 石油類消費附加稅로 充當하고 있다든지, 濠州 科學産業研究機關 (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의 羊毛研究資金의 例를 들 수 있다.

7. 맺 는 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綜合에너지開發을 위한 研究의 必要性, 技術開發課題, 重點課題 및 그 推進方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長期的인 計劃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效果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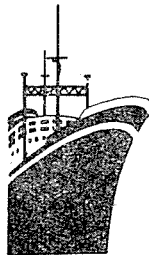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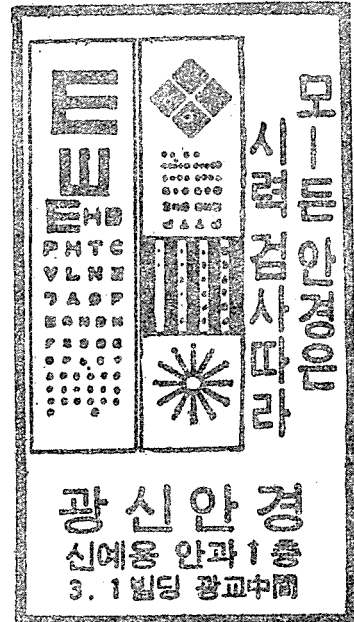
첫째, 에너지技術開發課題를 綜合, 調整하고 에너지情報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特殊

法人 韓國原子力研究所에 설치된 「綜合에너지研究部」의 效果的인 運營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長期財源確保를 위해서 石油類稅의 一定率을 중합에너지技術開發資金으로 「法定財源化」하는 法案이 制定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科學技術處, 韓國原子力研究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長期的인 「綜合에너지技術對策 및 調查研究計劃」에 의거하여 綜合에너지開發에 관한 研究가 一貫性 있게 計劃的 및 組織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綜合에너지開發에 관한 研究는 國家的인 사업이므로 國內 各 研究機關, 大學 및 產業界의 관계 科學技術者들의 積極적인 協調 및 參與가 있어야 할 것이다.





# 大陸棚 開發과 國際法上的의 問題點

서울法大教授 李 漢 基 博士

## 머 리 말

大陸棚 開發에 있어서 國際上의 法的問題는 대단히 많다.

이들 法的問題들중에서 가장 基本的으로 重要한課題는 무엇인가 이點에 關해서 大陸棚이 가지고 있는 定義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大陸棚이라고 하면 地質學的인 의미로 불리지는 것이고 이것이 法的概念으로 導入될때는 다시 變質되어서 오늘날 대단히 混難을 겪고 있는 狀態가 되었다.

大陸棚의 概念이 어디까지 왔는가? 地質學的인 概念으로 부터 出發해서 法的概念에 이르는 問題의 定義는 많은 異論의 주장이 엇갈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解決될 것인가에 關해서 그 展望을 간단히 생각해보기로 한다.

## 韓日·間의 大陸棚開發協定

지난 1月 30日 韓國과 日本이 大陸棚開發協定條約에 締結을 보았고 이에對한 中共의 干涉의 인 態度가 恐喝脅迫式으로 나타나고 있다.

韓·日間의 大陸棚開發協定締決에 關하여 中

共은 지난 2月5日 新華社 通信社를 通하여 항의를 提出해왔으며 이보다 하루 앞서 中共의 外交部는 『韓·日間의 大陸棚開發協定은 認定치 않겠다 여기에서 發生하는 모든 問題는 韓國과 日本이 전적으로 책임을져야한다』라고 협박적으로 나오고있다. 이런點으로 비추어볼때 大陸棚의 概念이 自明하다면 中共의 이와같은 협박은 있을수가 없었을것이다.

이미 알려진바있는 파라셀군도에 關하여서도 中共은 武力점령으로 하나의 問題를 제기시키고 있는것이다. 이와같은 事件 역시 지리적인 조건으로 생각하면 파라셀군도나 西沙群島, 南沙群島, 中沙群島, 南支那海의 群島들은 인도네시아나 또는 필립핀, 마네시아등에 가깝고 中共으로부터는 오히려 먼거리에 있는것이다. 그러나 中共은 武力으로 이 파라셀群島를 점령하고 자기네 領有權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이 또한 대륙붕개념이라고 하는것이 明確하지 않는데서 생기는 現狀이며 한편으로는 領土분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歷史的인 考察이 必要하게된다. 또한 천광열도 (중국은 약어대 日本은 생까구 아일랜드라고부름)의 問題도 韓國, 日本대만, 中共이 다같이 그에대한 權利를 주장하고 있어 역시 大陸棚의 概念이 模糊하다는 點을엿볼 수가있다,

### 大陸棚의 概念

地質學을 전공한 분들은 잘알겠지만 내가 배운 바로는 海面이 뻗어나간 狀態를 검토하면 海面이 완만하게 깊어 가다가 꼭뚝러져 절벽을 이루는 地質을 英語로 폴-아웃이라고 하며 이최초의 폴-아웃에 이르는 해상하고 그 地下(하칭토)를 지질학상으로 大陸棚이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Continental-Shelf라고 부른다.

그리고 컨티넨탈 스로우브라고 하는것은 최초의 폴-아웃에서 다시 급경사로 떨어졌다가 또 한번 떨어지는 地點을 말하는것인데 우리말로는 대륙선형이라 부르고 있다, 그다음에 컨티넨탈-라이스가있고 이 컨티넨탈-라이스단에 이르는 지점을 컨티넨탈-마진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같이 깊어들어가면 아비설-벡트라고 부르는 深海底에 이르게되는 것이다,

그런데 最初의 폴-아웃에서 海面에 이르기까지의 거리가 水深200m 그리고 沿岸으로부터의 거리가 평균 75km 약 40해리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컨티넨탈 스로우브 맨끝단 즉 終端이 水深 약 1,500m~4,000m에 이르고 다시 컨티넨탈-라이스의 終端水深도가 4,000m~5,000m에 이른다고 한다, 그래서 問題는 大陸棚이 과연 지질학상의 概念에 따라서 水深200m로 한정되는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컨티넨탈-스로우브까지를 포함해서 水深이 약 1,500~4,000m에 이르는 地點까지로 하느냐? 또는 컨티넨탈-라이스에 이르기까지 즉 4,000~5,000m 水深에 이르는 地點을 大陸棚이라고 하느냐? 이런 問題들이 지금도 그결론을 얻지못하고 論難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 石油 發掘에 중점

에너지 問題가 대단히 심각하게 提起되고있는 現今에 있어서 大陸棚의 問題가 크게 論議되고

있는 理由가 바로 이대륙봉에서 石油가 많이 나올수있다는 가능성이 있기때문이기도하다.

勿論 深海底에 들어가면 소위 망가니스-누들이라고해서 무슨 닐켈이니 코발트니 하는 달갈형으로된 鑛物이 무진장으로 있다고해서 오늘날 심해저의 問題도 큰 關心거리로 대두되어 UN 시벳트 委員會에서 論議가 되고있으며 今年 6월부터 8월에 베네셀라의 카라카스에서 가지게될 第3次 UN海洋法會議에도 다루어질것으로 생각된다.

### 트르만 대통령의 宣言

大陸棚에 關한問題가 갑자기 世界의 關心事로 대두된것은 1945年 9月28日 美國의 트르만 대통령이 大陸棚의 下層土와 海底의 天然資源에 關한 “美國의 宣言”이라고 하는 發布이후부터라고 하겠다.

이美國의 宣言은 『美國海底에 接한 大陸棚의 下層土와 해저의 天然資源에 關한것은 그權限과 統制가 美國에 속한다』고 하는것으로 간주된다.

이같은 劃期的인 美國의 宣言에서부터 세계 各國이 大陸棚에 關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고있는 것이다.

美國의 宣言에依하면 大陸棚이 他國의 海岸까지 연해 있을때에는 공대륙이라고 하며 이공대륙의 경우에는 兩國間의 合意에 依하여 分할한다고 되어있고 대륙봉의 使用은 公海로서의 성질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다시말해서 대륙봉이 어떠한 沿岸으로서의 主權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대륙봉의 상부수역이 沿岸國의 主權에 속하는것이 아니라는 原則을 제시했고 따라서 公해에있어서는 만국의 선박이 항해하는데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선언한 것이다.

### 世界的인 영향

美國의 선언에 이어 中南美제국, 中島 혹도등 30餘個國이 美國의 선언을 모방하여 大陸棚에 關한 선언을 했다. 그러나 이들나라들은 美國과 똑같은 원형을 宣言한것이 아니고 各自 自己네의 특수사정에 依하여 그에대한 선포를 했다고 하겠다.

### 各國에서 主張하는 有型

알젠틴 또는 멕시코를 위시한 南美제국에 있는 나라들은 大陸棚에 대하여 主權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칠리, 페루, 코스타리카, 사우디아라비아등 이러한 나라에서는 水深에 관계 없이 沿岸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서 200해리의 거리를 주장한다. 이들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거의가 大陸棚을가지지 않았기때문에 거리로서 海底地域을 가지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또한 브라질, 니카라카, 엘살바도르,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같은 나라들은 大陸棚에 대해서 領土權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자기영토에 편입시키는 나라들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가장 우리와 관계가 있는것으로 1952年 1月 18日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해안에 대한 主權宣言이라고 하는 宣言을 發布해서 深度여하를 막론하고 韓半島 주변의 大陸棚의 상부수역과 海上 및 下層土에 대해서 鑛物 및 水産資源에 관한 主權을 保留한다고 宣言했다.

이승만대통령의 이 선언의 특징은 深度여하를 不問한다는點과 하층토나 해상에 關해서 뿐만이 아니라 上部水域까지의 主權을 主張한점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韓·日間의 분쟁을 초래하여 결국 1965年 韓·日漁業協定에서 해소되어버린 결과를 가져오기도했다. 이와같이 大陸棚이라고 하는것이 처음에는 美國의 宣言으로부터 始作되어 1958년에는 第1次 UN 海洋法會議라는 것이 開催되고 여기서 大陸棚이라고 하는것을 정의했다.

### UN海洋法議會

이상과 같이 各國의 大륙봉선언이 너무도 구구한 立場을 나타냄으로서 생기는 混亂을 막기 위하여 1958년 大륙봉조약을 締結하였든바 大陸棚이라 함은 海洋에 인접하되 領海水深에 있거나 또는 이를 超過할지라도 海底地域에 있는 自然資源의 開發이 可能한 水域까지를 大陸棚이라고 정의했다. 즉 이정의에 依하면 일단 大陸棚이라는 것을 200m 水深으로 한정해놓고 200m를 초과 할지라도 어느 나라의 技術이 발달해서 그이하라도 開發할수있다면 그 點까지를 大陸棚이라고 정의한것이다. 이와같은 정의를 하다보니 또하나의 問題가 생기게 된다. 그것은 開發가능성에 관한 크라이테리아이다. 왜냐하면 개발가능성에 따라서 大陸棚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地質學的인 크라이테리아는 各國에 대하여 대단히 불공평한것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大陸棚이 海岸으로부터 水深 20m에서 始作되는 나라도 있는가면 어떤 나라는 200m 이상으로 멀리나가서 始作되는 나라도 있기에 일률적으로 水深 200m로 定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정의가 되는것이다.

大陸棚의 폭이라고 하는것이 一定치가 없어서 南美나 南美西海같은 곳에서는 大陸棚이 불과 수마일 밖에 되지않으나 인도네시아, 인도북부, 오스트렐리아, 싸이레리아, 레닝해등의 沿岸은 數百마일의 大陸棚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또 지질학적으로 전연 大륙봉을 갖고, 있지않는 나라가있다. 그래서 이와같은 지질학적인 大陸棚만을 가지고는 정의를 결정하기가 매우 불확실하므로 1958年의 海洋法會議에서는 地質學的의概念으로부터 大陸棚의 정의를 이탈시켜버렸다.

그다음에 水深이라고 하는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트르만 선언에서는 水深을 말했는데 水深의 깊이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確定하지 않았고 그 후 프레스리스에서 대체로 200m에 600피트라는

것을 처음으로 定하는 宣言을 한것이다.

또 大陸棚을 主張하는 일방적 선언이라던가 1958년에 締結된 大陸棚條約 이것도 역시 水深이 各國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均一한 海底地域을 주지못한다고 하는 結論이 問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美國上院議員인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提案을 하게된 것이다. 이 사람은 海洋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서 深도 550m와 50마일을 提示하여 이들 두가지中에서 하나를 兩國의 편의에 따라 선택을 하자는 제안이다.

다음으로 開發可能性에 關한 問題역시 開發의 能力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全海洋을 沿岸國에 依해서 불하되는 結果를 가져오게되며 이에 따라서 全海라고하는것은 남지않을 우려마저 있다는 것이기때문에 이 主張에도 불평이 많다.

이상과 같은 結果로 또다시 거리에 依한 측정을 하자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日本같은 傳統的 保守派인 나라도 40마일 정도로 結論을 하자는 제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케냐를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구들과 아시아 구들도 거리측정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해서 이들은 200해리를 認定거리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注目해야할 重要한 問題가 있다. 이것은 이들 나라들의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點이다. 이들 나라들은 세븐틴—세븐그룹이라고 불리는 集團을 이루고 있으나 現在 95個國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있다고 하며 또한 점차로 증가되어지고 있는 實情이라고 한다. 이들 나라들이 주장하는 200해리는 沿岸으로부터 200m 深도의 지질학적 대륙붕의 最大限의 거리라고 주장하고있어 케냐같은 나라에서는 이것을 境界수역으로 인정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제국은 領海를 일단 해리로 定하고 境界수역을 200해리로 하자고 주장하여 그 안에있는 生物資源, 非生物資源등의 모든 것을 獨점하자는 의도를 보이고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일어나고 있으나 最近에 美國이 여기에 동조하기 시작해서 새로운 問題로 등장되어지고 있다.

美國이 이들 나라들이 主張하는 領海해리의

規定에 동조하는데는 그 理由가 너무도 明確하다. 이는 자기네 軍함이 全世界적으로 機動作戰을 해야함에있어 領海가 넓어지면 그만큼 자기 나라의 軍함이 통과하기 어렵기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美國의 7함대나 6함대의 機動作戰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들이 大部分이고 이중 스페인과 같은 나라를 그代表로 들수가 있다. 그래서 美國은 이들이 주장하는 12해리의 領海權을 認定하는 반면 海域에서의 自由活動을 認定받으려는 條件을 제의하여 領海 12해리를 주장하는 나라들에 동조하는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問題들은 앞으로 6月에서 8月에 開催될 第3次 UN 海洋法會議에서 結論지어질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이미 各國의 태도가 UN의 시—벳트 코미티라는데서 탈퇴해 버렸다는 事實이다.

勿論 多數決로한다면 단연 아프리카, 아시아 구들의 주장이 통과될 가능성이 짝으나 이것은 작년 뉴욕에서의 예비회담에서 多數決이 아닌 全員一致制로 하자는 異見이 맞서서 解決을보지 못하고 앞으로 파라카스에서 열리는 第3次會議에서 結論지어질것으로 보인다.

### 中共이 主張하는 大陸棚

中共은 大陸棚의 概念을 어떻게 主張하고 있는가 이점에 대하여 論하기로 한다.

中共은 大陸棚을 自然的延長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말해서 陸地가 自然的으로 延長된 部分까지가 대륙붕이라고 하고있다. 이러한 態度로서 中國大陸이 어디까지 뻗어갔는가를 따지고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學說이 구구해서 Continental-Shelf까지가 自然的延長이라고 하는 說과 컨티넨탈—스로우브까지가 自然的延長이라고 하는說 또는 컨티넨탈—라이스까지라고하는 說등등으로 맞서 決定을 보지 못하고 있다.